

## 기말고사 ‘대면 원칙’ 확정에도 ‘비대면’ 선택 절반

교강사가 안전, 공정성 관리  
세부 유의사항과 주거대책 마련  
캠퍼스 간 셔틀버스 운영도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총학생회(총학)와 학교가 ‘기말고사 대면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총 2167개 가운데 884개(40.7%), 국제캠퍼스(국제캠)는 1835개 중 1,002개(54.6%) 강좌의 기말 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치른다. 나머지 강의는 비대면 시험이나 과제 대체 등의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서울캠 총학은 “두 차례에 걸친 부총장과 총학생회장단 간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기말고사 대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캠 남순건 학무부총장과 교무처장, 코로나19 종합상황실장, 총학생회장단이 기말고사 시행 원칙 재논의를 위해 진행한 면담의 결과다. 기말고사 대면 원칙은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종합상황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면 시험을 진행하는 교강사는 비대면 시험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등의 학생들은 해당 교강사에 ‘비대면 평가신청서’를 제출해 비대면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캠 총학 또한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해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도 허용한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학이 대면 시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며 ‘대면 원칙 철회’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성적 평가의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대면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논의 결과에 대해 서울캠 총학은 “대면 시험 진행 시 발생할 우려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말고사 기간까



서울캠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학생회장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반환 등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제공)

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원칙을 재공지한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일부 강의에 대한 대면 시험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기말고사 대면 원칙이 결정된 상황에서 서울캠 총학은 “시험기간 전까지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마무리할 것”과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책임자로 담당 교강사를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대면 평가신청서에 ‘대면 시험 비희망자’란을 추가해 확진자나 유증상자 등을 제외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시험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비대면 시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기말고사 기간 전

까지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최대한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교무처장 권한으로 전 수업에 대해 교강사가 시험 진행 시 안전, 공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비대면 평가신청서에 ‘대면 시험 비희망자’란을 추가하는 건에 대해서는 “악용될 수 있으며, 교강사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말고사 기간 동안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주거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는 총학이 진행한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교가 마련한 것으로, 300명 이상의 학생이 서울캠 세화원과 행복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다.

양 캠퍼스 학사지원팀은 기말고사 관련 세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의사

항에 따르면 대면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 정문과 건물 출입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건물에 출입할 때마다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또한 ‘강의실 출입자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곧바로 귀가해야 한다. 국제캠 총무팀은 “기말고사 기간인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양 캠퍼스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학생회관 식당 또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사지원팀은 비대면 시험에 대해서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과목 성적 무효 처리 및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시험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홍익대와 서강대는 성적 평가기준을 유연화하기 위해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

했다. 이는 D학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P(Pass)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P로 처리된 과목은 평균 학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홍익대 총학은 지난달 15일 등록금 부분 반환, 전 과목에 대한 학점 포기 허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서울캠은 지난 10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각 지역의 학생자치 연합조직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가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국제캠 총학은 지난 12일 진행된 회의에서 학사일정과 기말고사 세부 운영방식 관련 요구안을 학교에 전달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기말고사 관련 신문고’를 열고 대면 수업 강행 사례 등을 파악하고 있다.

## 새 단장하는 우정원 “교내구성원 위한 편의시설 조성”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국제】우정원이 새롭게 리모델링된다. 학교 측은 “우정원 리모델링 시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2019년 5월부터 계획한 이 공사는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기흥구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기타 관련법을 고려해 공사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지속적으로 교내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정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보수 공사는 학생들의 거주 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을 나누어 진행된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편의시설 조성 공사가 우선 시행되며 지상 6층 기숙사 개·보수 및 7층 연구실 조성 공사도 진행된다. 이후 방학을 활용해 지상 2층에서 5층까지 기숙사 공간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각각 학내구성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학생 창업 지원 시설, 서점, 운동시설, 1층에는 은행, 편의점, 커피숍, 세탁소, 문구점, 푸

드코트 등이 생긴다. 또한 기숙사 학생을 위한 기숙사 사감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휴게실, 취식실, 조리실, 택배 보관실, 그 외에 기타 학생을 위한 학생지원 행정부서, 우체국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지상 2층에서 6층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숙사로 운영되며, 7층은 학생수 감소와 기숙사 공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실로 전환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2021년 2월 중 개·보수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2021학년도 개학 시점부터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지면안내

#### 기획

이번 학기 아쉬운 행정 조치 ... 소통 부재 해결해야

» 4면

#### 연재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단절은 직시하고 경계는 뛰어넘고 ... 청년정치의 시작

» 6면

#### 인터뷰

보수 정치권 세대교체 “축적된 역사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 8면

#### 알림

※ 이번 호가 1학기 종간호입니다



시선

사설

어렵게 해야 소통이다

‘기말고사 대면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와 학교는 논의 끝에 대면 시험 방식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캠 총학생회는 지난 10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은 학생들과 적극 소통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했다. 학생-학교 간 논의가 마무리된 지 겨우 닷새만의 일이다.

한 차례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결국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지금껏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의 문을 두드려왔지만, 돌아온 것은 무응답과 무대책이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학생 측은 지난달 11일 교무처가 ‘기말고사 대면 시행’을 공지한 이래 “학생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해온 바 있다. 학생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와 지방 거주자들의 주거 마련 부담에서다.

당시 시각차가 있었다. “교강사 재량에 따라 평가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기숙사가 부족해 숙소를 지원하기 어렵다” 학생 감염 우려와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학교의 관점이다. 이어 “최선의 방법으로 대면 시험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일견 그렇게 보인다. 대학본부는 슬한 압박감에 놓여왔다. 코로나19 사태는 매 순간 급변했다. 상황이 이런데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사실상 점쟁이들이나 할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교는 학사 일정을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조율해야만 했다.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 갈등도 마

찬가지다. 물론 학생들의 요구에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학생이 몰라주니 학교도 억울하다.

다만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학생에 대한 ‘공감 부재’에서다. 사정을 몰라준 것은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압박감에 놓인 학생들은 차악을 고민해야만 했다. 대면 시험으로 인한 ‘감염 위험성’과 비대면 시험으로 인한 ‘불공정 우려’ 중에서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걱정들에 썩소한 온라인 수업도 겹쳤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런 학생들의 면담 요청을 수차례 미루거나 거부했다.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단칼에 선을 긋거나 책임을 교원 몫으로 넘긴 것이다. 너무나도 손쉬운 소통 방법이었다. 학생 대표들이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재차 행동에 나선 이유다.

어렵게 공을 들여야 만족할만한 소통이 된다. 홍익대와 서강대는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했다. D학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P(Pass)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홍익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전 과목에 대한 학점 포기 허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에 학교 측이 공감을 표한 결과다.

‘소통(communication)’의 어원은 라틴어로 ‘함께 나누다(communicare)’라는 뜻에서 왔다. 바이러스 재난으로 학내 구성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탈진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한 짐을 나눌 때다. 이들 각각이 서로를 포용하는, 진심 어린 소통으로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만평 - 갈등을 넘어 연대로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2)

발행인 한군태 | 편집인 남운재 | 편집장 김지원 | 제작/인쇄 중앙미디어디자인(주)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외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인권은 파이가 아니다

세시봉

김수혁 <기획팀장>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로 시작해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로 끝난다.

제1조에서 인권의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면 제30조에서는 인권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한계를 다루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조항별 의미와 구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설에 따르면 제2조는 인권의 적용에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제3조부터 21조까지는 모든 인간의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권리, 모든 예측상태로부터의 해방, 공정한 재판, 자유로운 발언과 행동 및 사생활의 보호가 필요함을 밝힌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자아 계발을 위해 필요

한 노동, 보수, 여가 등의 경제적 권리와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회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과 학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조항인 제30조 바로 앞에 등장하는 두 조항,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라는 내용이다. 제1조부터 제27조까지가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누려 마땅한가’를 말한다면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마땅한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짓밟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의무다.

최근 인권을 ‘파이’에 비유하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듣곤 한다. 인권은 경제적 재화와 마찬가지로 한정된 자원이며 개인 혹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은 자신이 ‘인권배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이 정의하는 인권은 각자가 점유하기 위해 쪼개고 다뤄야 하는 파이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로 가지는 권리이면서 타인 역시 마찬가지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다.

조지 플로이드 씨가 체포 과정에 순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폭력적인 과잉제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흑인차별에 대한 누적된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플로이드 씨가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을 거둘 때까지 걸린 8분 46초라는 시간은 인간 존엄이 모욕당한 시간이다. 플로이드 씨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욕은 그와 같은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들 만의 일도, 그와 같은 인종 정체성을 공유하는 흑인들 만의 일도 아니다.

물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다. 정치와 사회운동이 인권을 논하는 와중에도 가시화조차 되지 않은 차별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인권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말이 공허한 울림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개선에는 개선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제도의 좁은 시야가 빚어내는 문제의 해결 역시, ‘인권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가치에 대한 인식의 영역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수첩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청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청년은 어느 누구를 꼭 집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나이에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남성,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사업가,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고졸자 등 각자의 색깔을 담은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청년을 다양한 눈으로 바라봤는지에 대해서는 그 물음을 쉽게 거둘 수 없다.

이런 물음 속에서 지난 두 달여간 ‘청년정치는 가능한가’라는 대주제 아래 청년정치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다뤄왔다. 2부 ‘페미니즘이라는 단절’에서는 최근 대학가가 마주한 총여학생회(총여) 폐지의 물결을 소개했다. 총여 폐지 과정에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 없이 진행된 ‘게으른 민주주의’를 지적했다.

3부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 연일 ‘청년이 분노했다’고 보도한 것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재·졸업자, 서울 거주자, 특히 서울권 대학 재·졸업자만을 두고 청년이라 지칭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다른 출발선을 간과하고 겉과적 공정성만을 이야기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청년을 타자화하고 배제했다는 것과 아울러 범주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단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서만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안에서 발생한 문제와 갈등이 끊임 없이 끓아터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며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 이번 연재를 시작하기 전 한편으로는 과연 기사의 결론에 공감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나아가 정치를 혐오하는 시대에 정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청년이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앞섰다. 또한, 취재하기 전까지 청년정치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다소 공감하지 못하기도 했다. 각자 성별부터 나이, 배경, 정치적 성향, 주 활동영역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른 것

투성이인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사에 인터뷰를 응해준 천하람 대표, 이호석 의장, 류호정 의원뿐 아니라 이전 기사에 인터뷰를 응해준 김정도 전 회장, 이민선 회장 등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모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느낀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이야기했다. 즉,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박혀있는 차이에 대한 혐오와 여기서 발생한 갈등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나은 청년정치를 위해 움직이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비록 다르지만 같았다.

김영희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를 통해 “차이와 연대는 (···) 장기적 전망을 전체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둘수록 다른 운동과의 연대를 자기 운동의 외적 과제가 아닌 내적 과제로 삼아야 할 필요가 커진다”고 말한다. 청년정치도 다르지 않다. 청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각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받아들이고 연대한다면 비로소 청년정치는 가능할 것이다.



# 국가기록 관리 표창 “대학 역사 전시관 설립 기대”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우리학교가 국가기록 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가기록 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표창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기록 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9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는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6월 9일은 ‘세계 기록의 날’로, 올해는 ‘세계 기록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맞이하는 첫 해다. 수여식은 수상 경과 보고, 표창장 수여, 수치 달기, 총장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에서 경희기록관 남기원 과장은 “올해 우리학교가 기록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 과장은 “다른 대학과 달리 법인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수상의 주된 이유”라며 “각종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 회장교로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대학기록관협의회에는 경희기록관 김희찬 관장이 회장으로, 남기

원 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약 30만 컷의 필름 자료를 가지고 있다. 김 관장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귀중한 자료를 분실했다”며 “우리학교는 한국 전쟁 이후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진과 음성 자료를 남겨 놔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 관장에 따르면 경희기록관의 최종 목표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 전부를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체 자료의 36.5%가 디지털화됐다. 김 관장은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화에 힘썼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록 관리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경희기록관에도 고민은 있다. 기록물을 보존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용은 실장은 “우리학교는 약 20℃에서 필름 자료를 보관 중”이라며 “일반적으로 필름은 1℃ 내외의 수장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 대학은 각 부서의 자료가 모두 기록관으로 이관된다”며 “우리학교도 그렇게 된다면 보관 공간이 많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우리학교가 ‘국가기록 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왼쪽부터 한균태 총장, 경희기록관 김희찬 관장.

(사진=장보경 기자)

이날 수여식에 참여한 한균태 총장은 “기록은 후대에 전승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간 부족 등 경희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010년에 설립된 경희기록관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경희기록관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설립됐다. 남 과장은 “대학의 역사를 온전히 보전하고,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기록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경희기록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설립 이후 경희기록관은 활발한 수집활동 전개와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희기록관은 현재 약 4만3천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 주요 행사 때 전시회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빈번히 받고 있다.

경희기록관은 앞으로도 기록 관리와 수집에 힘을 예정이다. 남 과장에 따르

면 경희기록관은 학내 구성원과 일반인이 우리학교의 역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역사전시관을 설립하는 것과 더불어 기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록 관리의 모든 절차를 전산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교 100주년 교사편찬을 대비해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남 과장은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의식이 높기 때문에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 대학원생 성폭행 혐의로 교수 구속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우리학교 A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A교수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결정에 따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내부의 조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이뤄진 시점인 지난해 11월과의 간극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가 최근까지도 학부 수업을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가 2차 피해 방지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원과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립대의 경우에도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 원칙에 따라 교원에 대한 형사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학교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특정 사건의 수사통지 여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보호조치와 관련해 성평등상담실은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각 사건과 유형에 따른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과 관련한 보호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

은 비밀유지 원칙을 벗어나기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배포한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은 접수 및 상담 단계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가해 행위자를 분리시키는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을 담고 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성평등상담실은 “현재 성평등상담실에 신고, 접수된 이후 피해자와 협조 하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그러나 경희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상 사건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가 원칙이므로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와 조사 및 처리 과정을 일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 진행에 따라 추후 이뤄질 수 있는 내부 징계에 대해서도 “징계에 대해서는 조사단계 이후 개최되는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이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된다”며 “징계 내용 역시 개인정보이기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A교수의 수업은 현재 다른 교수가 대신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학과의 조교 C씨는 “교수님 개인사정으로 인해 13-14주차 수업은 다른 교수님이 맡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공대 건물 열람실 리모델링 및 정비 완료, “개방은 아직”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국제】 공과대학(공대) 건물 열람실 이 새 단장을 마쳤다.

공대 행정실 측은 지난 4일 “환경 노후화로 두 달간 실시한 리모델링과 정비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작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2019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공대 건물 C동 1층에 위치하던 열람실은 지하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대 행정실은 “기존 1층 열람실이 복도를 통행하는 구성원의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하 2층 화장실 환경 또한 개선됐다. 지하 2층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와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에 대한 후속조치다.

기존 168석이던 좌석은 186석으로 증설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석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석 예약 시스템과 좌석 발급기도 새로 도입했다. 새로운 좌석 예약 시스템은 중앙도서관 시스템과 동일하다. 공대 행정실은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용자가 도서관의 열람 좌석 시스템처럼 학생증으로 인증한 뒤 좌석을 부여받고 사용하게 된다”며 “(해당 시스템이) 사석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공대 열람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김민배(산업경영공학 2018) 씨는 “1층에 강의실, 사물함 등이 있어 학생들이 많

기존 168석에서 18석 증설, 새로운 좌석 예약시스템 도입  
“개방은 코로나19 종합상황실 결정에 따라”

이 다니다 보니 다소 시끄러웠다”며 “지하로 옮기게 돼 조용한 학습 환경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소속 A씨는 “공대 열람실 사석화 문제로 항상 중앙 도서관에서 공부했었다”며 “이제는 전공 수업 들은 뒤 중앙도서관까지 가야하는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공대 건물을 이용하는 응용화학과 학생 역시 리모델링된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작년 11월 4일에 공표한 ‘공과대학 열람실 관련 합의문’에 따라 열람실 운영비용은 응용화학과와 공대 재학생 인원 비율에 따라 각 학

과 및 단과대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열람실 개방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로 부분개방 계획이 취소된 것이다. 공대 학생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여 부분개방을 계획했었다”며 “하지만 확진자수가 다시 증가하고 열람실이 지하에 위치에 환기가 어려워 개방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대 행정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과 함께 대학 본부 주관부서인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의 정책결정에 의해 개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공과대학 건물 C동 지하 2층에 마련된 열람실 모습.

(사진=박창원 기자)



## 기획

## 이번 학기 아쉬운 행정 조치 ... 소통 부재 해결해야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우리학교는 코로나19 대책반과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을 개설했다. 이에 지난 1월엔 서울 소재 대학 중 가장 빨리 개강 연기를 발표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학사 일정과 정책은 대부분 여기서 결정됐다. 빠른 정책 결정과 함께 코로나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두어 외국인 학생 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 정책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는 대책반 회의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학사 관련 문제는 결국 학생들의 학업에 직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학교 측은 대책반 회의에서는 유학생 입국 관련 문제, 격리 사항 등의 국가적 내용을 더 다루기 때문에 총학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대신 학사 관련 사항은 총학, 미래혁신단과 함께 별도로 학생소통 TF를 구성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는 질문에 서울캠 총학생회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부총장 주재 TF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충분히 소통되고 있다"며 "현재 학사교육, 안전대책 문제, 건의 등 학생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통이 학교 정책에 실질적으로 잘 적용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3월 약속한 대면강의 시행을 앞두고도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대면강의 날짜를 2주간격으로 계속해서 연장했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는 5월 4일을 기준으로 경계 단계 이하로 격하되지 않을 시 '1학기 전면 비



서울캠 내 대면시험 조건을 추가해 달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장보경 기자)

대면 수업'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추가 연장은 교내구성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학교 측은 "대면 강의가 진정한 대학 수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다"라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만 밝혔다. 결국 5월에 이르러서야 '1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 확정'을 발표하며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일일뿐더러 학생들의 안전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타 대학도 주시하며 일어나는 상황을 살피고 이에 세부지침을 정해서 공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표 전까지 학내 구성원들은 주거 문제나 수업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겪어야 했다.

기말시험 변경 시행 안내에 따르면 기말 시험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나,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비대면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학교 홈페이지는 "성적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면 시험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부정행위 방지 및 공

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다면 교강사의 자율적인 평가방식을 허용한다"라고 공지했다. 서울캠 부총장실 백성선 행정실장은 "전공과 강의수업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동일한 지침을 내리는 것이 교수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고 시험 방식을 교강사 재량에 맡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학사지원처는 "언론 등을 통해, 타 대학의 비대면 평가에서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 처리된 사례 및 여러 대학에서 발생한 학생간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된다"며 "학생들에게 중요한 성적 산출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학생들 스스로가 제일 많이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학생들이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대면시험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의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6월 9일 기준, 국제캠퍼스에서 대면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강좌 수는 45.4%, 서울캠페

스는 59.3%에 달한다. 이는 교내 구성원과 학교 측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것은 안전성을 위해 대면 원칙을 따르지 않은 교강사들에게 형평성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기말시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총학과 논란을 이어간 것도 갈등의 한 축이었다. 서울캠 총학은 지난달 13일 기말대면 원칙에 대한 입장문 전달을 시작으로 수차례 '대면시험 원칙 철회'를 요청했다. 지난 2일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과 학생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캠 확대운영위원회의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학이 성명문을 전달하고자 총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부총장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의 면담도 거절됐다. 이에 총학은 지난 3일 본관 항의 방문을 벌였고 당일 오후 부총장과 면담이 진행돼 기말고사 대면 원칙 철회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대면 원칙엔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5월 21일에는 양 캠퍼스 총학이 함께 기말고사 대면 원칙에 대한 공개요청서를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논의는 6월 5일 다시 진행됐지만 기말고사 대면 원칙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총학은 "더 이상의 원칙 변경 요구는 불가능할 것 같다"며 양보하는 대신 대면시험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갈무리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이전부터 면담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원하던 것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며 "앞으로는 학생들과의 소통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학교만의 문제

가 아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대학가를 점령했다. 실제 비대면 시험을 시행한 인하대학교에서는 지난 3~4월 치러진 온라인 시험에서 의과대 학생들의 집단 커닝이 발생했다. 반대로 5월 말 일부 과목에서 대면방식의 중간고사를 치른 가천대학교(가천대) 글로벌캠퍼스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가천대는 실시간 화상 수업 및 대면 강의 계획을 전면 취소했으며, 교내 접촉자 200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런 논란들에 "대면, 비대면 중 뭐가 맞는지가 아니라 현재 있는 평가방식 자체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라며 "앞에 말한 새로운 교육 평가방식이나 비대면을 통한 실험·실습·실기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행사나 자치회비 운영에 관한 안전 등의 대책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도 코로나19 사태가 개강 직전에 확산되면서 이를 미리 대처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도 얘기했다. 그는 "방학기간 동안에는 세세한 규칙까지 잘 조정해서 공지가 일을 앞둔 직전에 올라오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바람을 표했다.

한편,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는 공지된 바와 같이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사지원처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은 예측불허인 상황이다"라며 "2학기 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하므로 코로나19 대응 TF 등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 대학주보 69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 대상 :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중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 전형 일정

- 서류 전형 (지원서 작성) : 6월 15일 월요일 ~ 6월 19일 금요일  
- 면접 일시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일정 조율  
-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 전형 방법

- 1차 : 서류전형 (입사 지원서 및 필기시험 작성 후 제출)  
- 2차 : 개별 면접 진행

## • 접수방법

-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팝업창에서 입사 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 • 주요 업무

- 학내 뉴스 아이템 발제 - 주 1회(월) 주간회의 필참  
- 발제 아이템 기획 및 취재 - 온라인, 지면 기사 작성

## • 활동 혜택

- 장학금 지급 (최대 전액) - 원고료 지급 - 현직 언론인 특강 - 해외취재 기회 제공

##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DM (khunews\_jubo)  
- 연락처 : 010-4004-0653 편집장 이후송, 연락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 전화 : 02-961-0095 (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 (국제캠퍼스 편집실)



# 생기 잃는 자연사박물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려면

이지민 기자 [delicado@khu.ac.kr](mailto:delicado@khu.ac.kr)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mailto:1_jinseok@khu.ac.kr)

1978년 개관해 9만여 점의 표본을 갖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은 자연보존과 생명의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설립되었다. 표본 규모는 전국 대학 박물관 중 최상위급이다. 자연사박물관은 경희학원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관람객의 교육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다른 박물관을 찾아 먼 곳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기동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평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관람객 감소가 주된 이유다. 2016년 9347명이었던 외부 관람객은 2019년 7863명으로 줄었다. 다행히 교내 관람객 수는 늘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을 15년 넘게 관리해 온 안철범 학예사는 “옛날에는 학교 학생들이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았다”면서도 “2016년부터 사전준비를 시작해 2017년부터 필수 교과인 ‘빅뱅에서 문명까지’ 수업 과제에 박물관 관람이 추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과제를 위한 일회성 방문이 대부분이다. 잠재력을 갖춘 자연사박물관이 생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자연사박물관 측은 관람객 감소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속사정을 내비쳤다. 안 학예사는 “공간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인력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현재 박물관 정직원인 학예사와 기능직 직원 각각 1명이 전부다. 계약직 직원도 1명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7년까지 2명으로 유지되던 학예사 정원마저 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2019년 새 수장고에 보관될 표본 9만 점 가량



9만여 점의 표본을 갖춘 자연사박물관의 내부 모습이다.

(사진=이지민 기자)

“

박물관을 무언가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

”

을 직원 2명이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인력 부족으로 자연사박물관 측은 2018년 초부터 주말 운영을 중지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관람은 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만 진행되고 있다. 주로 주말에 방문하는 외부 관람객 수가 줄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 새로운 전시 프로그램 기획 등의 제안은 언급받지 않는 것이다. 안 학예사는 “주말에는 박물관 문을 열지 않아 일반 관람객들이 오지 않고 있다”며 “대체 방안으로 한 달에 두 번, 수요일 야간 개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학예사는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는 외부 관람객을 모집할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박물관 내부에서는 방과 후에도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 중”이라면서도 “이 역시 인력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자연사박물관에 학생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인력 부족 문제를

를 해결하는 동시에 관람객 수를 활성화하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화관광컨텐츠학 소속인 A 교수는 “자연사박물관은 경희학원 내 여러 학생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만큼 각급 학교와의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학예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혹은 생물학과 등 관련 학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돕고 전공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학생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덧붙여 자연사박물관이 이처럼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인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밝혔다.

실제 서울대 측은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슨트 봉사자를 모집, 미술관 전시회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관련 분야에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답이다.

실제 자연사박물관도 학생과의 연

계 지점을 높이는 데 고민이 많다. 지난달에는 ‘학부생 서포터즈’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된 서포터즈들은 학예사의 교육을 받아 직접 표본을 촬영하고, 박물관의 전시와 홍보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서포터즈는 세 가지 부서로 나누어 진행된다. 홍보, 표본, 전시이다. 장학금도 지급된다.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백서림(생물학 2020) 씨는 “6층까지 넓은 전시실이 있고 다양하고 희귀한 표본들도 있어 많은 가능성이 잠재된 공간이라 생각한다”며 “전공 분야와 관심사가 일치해 서포터즈로 지원하게 됐다”고 답했다.

현재는 다섯 명의 학생들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한 명은 자연사박물관에 특별한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안 학예사는 “국제캠퍼스 학생 한 명이 장학금과 관련 없이 박물관에 관심이 있다고 연락해왔다”며 “그 학생이 전시, 해설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

학생 참여 공간을 늘리는 시도도 진행 중이다. 안 학예사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위해 2층 전시실에 스터디 공간 등을 조성했다. 2층 전시실엔 아예 테이블과 콘센트, 와이파이도 설치되어 있다. 그는 “공부하는 공간과 같이 편하게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박물관을 무언가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생각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학예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찾아와 많이 물어보고 체험했으면 좋겠다”며 “어떤 박물관이든 한번만 보고 끝내면 아쉽다. 여러 번 방문해도 언제든 환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박물관이 학생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참여와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II유형(긴급경제사정곤란자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20년 1월~5월 중 학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휴업 제외)상태인 학부생
    - ※ 신청일 기준, 재취업 및 재창업한 경우 제외
  -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자
    -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교내 경희목련장학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지원 (9·10학기 포함)
    - ※ 단,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은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 지원기간** : 2020-1학기 (7월 중순 이후 장학금 지급 예정)
  - ※ 실직·폐업발생 기간별 지급 시기 : [1학기] 1~5월 / [2학기] 6~10월
  - ※ 한 학생에게 한 학기만 지원 가능(2020-1학기 지원자는 2020-2학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방법**
  - 학생명의 계좌이체 지급
  - 재단 내/외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 상환 처리
- 장학금 지급 제외자**
  - 해당학기 미등록 휴학자
  -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중 국가장학금 수혜 한도(횟수) 초과자

- 자퇴 및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
  -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자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기존 II유형 지원분과 긴급경제사정곤란자 지원 합산액 기준)
  - 중복지원 미해소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0.6.8.(월) ~ 6.19.(금), ‘우편’으로 서류 제출
    - ※ 주소 :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1층 학생지원센터(장학)
    - ※ 원본 확인을 위해 우편(등기) 접수만 진행함(온라인 및 팩스 제출 불가)
    - ※ 서류 분실 위험이 있으니 ‘등기우편’으로 송부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이라고 명시할 것
    -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발급방법
공통	장학금신청서	첨부양식 참조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증명)	온라인발급(정부24 홈페이지)
퇴직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필요
	(비자발적 실직여부 확인)	
폐업	폐업사실증명서	온라인발급(정부24 홈페이지)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0.6.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기타 유의사항**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탈락자 중 이번 건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한도에 반영됨
    -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1회 차감되므로 신중한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 (2020 후기 추가모집)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2020.6.15(월) 10:00~28(월) 17:00	• 접수처 : <a href="http://www.uwayapply.com">www.uwayapply.com</a>
고사장 안내	2020. 07. 09(목) 15:00~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 <a href="http://edu.khu.ac.kr">http://edu.khu.ac.kr</a> )에 공지
고사비고	2020. 07. 11(토) 10:00~	• 일반전형, 특별전형 지원자 전체
합격자 발표	2020. 07. 18(목) 10:00	•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 시험장소 : 서울캠퍼스 경운관,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합격자 등록	2020. 07. 20(월) 10:00 ~ 22(수) 16:00	• 세부사항은 신입생 모집요강 내 수험생 유의사항 참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연재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단절은 직시하고 경계는 뛰어넘고 ... 청년정치의 시작

4부 그림에도 불구하고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연재 기획 - 그림에도 불구하고

- 1. 청년은 없다
- 2. 페미니즘이라는 단절
- 3. 서울과 대학이라는 경계
- 4. 그림에도 불구하고

# 앞서 3회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 오늘날 ‘청년정치’가 마주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몇 가지 구조적, 인식적 제반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지목된 제반 조건들은 결국 청년정치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조건 아래서도 진정한 청년 정치의 성립과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청년정치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연재 1회차, ‘청년은 없다’에서는 기존의 청년담론이 전제하는 ‘청년’ 범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뤘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청년이라는 범주가 개개인의 구체성과 다양성을 지워버리는 타자화와 배제의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청년정치는 가능한가’의 출발점이었다.

2회차, ‘페미니즘이라는 단절’과 3회차, ‘대학과 서울이라는 경계’에서는 타자화와 배제 이면에 있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청년들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들을 살펴봤다. 연이은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라는 현상은 ‘더 많은, 더 근본적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여성들’과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성 차별 구조에 대한 해석을 거부하는 남성들’을 가르는 거대한 인식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었다.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학벌주의, 서울중심주의 같은 구조적 격차와 부조리의 결과를 개인적 노력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린다. ‘공정성에 예민한 청년세대’라는 구호는 맹목적인 경쟁 논리를 내재화한 청년들의 ‘무한분열’을 암시하는 위험신호인 지도 모른다.

공정성은 기회의 평등  
눈에 띄지 않는 차이 고려해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의 단절과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오늘날 청년을 종횡으로 해체하는 두 기점이라고 할 만하다. 청년 스스로 상대를 동등한 의논과 협력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년정치의 이름으로 연대와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

기는 힘들 것이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전라남도 순천갑 지구구에 출마했던 정치그룹 ‘젊은 보수’의 천하람 대표는 청년세대가 공정 담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고 봤다. 천 대표는 “현재 청년세대가 기질적으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고착화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정된 기회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정의당 비례 1번으로 공천받아 21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가 된 류호정 의원 역시 “청년들은 불평등한 세상에 짓눌려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으로 내몰려 버린 것이다”라면서 “기성세대가 그런 청년들을 가리켜 단순히 ‘공정성에 예민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책임회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분명히 눈에 띄지 않는 출발선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경쟁의 모든 영역을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정량평가에 매달리도록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천 대표는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지만 형식적 공정을 맞추는데 갇히는 게 아니라 공정이라는 개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분에서 경쟁의 참가자들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다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신뢰자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페미니즘이 제시하는 의제에 기성세대 남성과 2,30대 남성이

다르게 반응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에서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성평등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2,30대 남성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달리 자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누려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82년생 김지영’의 이야기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 의원은 청년들이 성별을 초월한 구조적 불평등에 짓눌려 살아가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도 힘들니까, 내가 힘들니까 다른 차별을 보고, 이해하고, 포용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권 정치의 역할은  
감정 충동을 정제·완화하는 것

천 대표는 제도권 정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천 대표는 “남성들의 군 복무 환경의 열악함이 문제로 제기됐다면 이미 위험판결이 난 군 가산점을 다시 들고나와 논란에 불을 붙일 게 아니라 합당한 임금과 복지 향상 등 군 복무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출산과 육아에서 여성들이 큰 부담을 지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여성의 경력 지속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안에 따른 성별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제도권 정치의 영역에서는 피해의식을 자극해 감정 충동이 격해지지 않도록 논의를 정제,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정치의 앞길에 비단 이 두 가지

문제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총학생회연대조직인 ‘충남세종대학생연합회’의 이호석 의장은 청년들의 정치협오를 꼽았다. 이 의장은 학생자치 영역에서 겪은 사례를 들려줬다. 그는 “학생회장 시절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학생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한 일이 생겨 집행부 회의에서 규탄 성명을 제안했는데 총학생회 내부에서조차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한다. 이 의장은 “청년들에게 ‘정치’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이는 상황에서 ‘청년정치’를 하자고 했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층 사이에서 ‘정치질’이라는 말이 ‘협잡질’의 동의어로 쓰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이 같은 의견과의 연대, 다른 의견과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정치’를 문제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정치를 문제해결 도구로 인식하지 못하는게 공감대 형성 못하는 원인

천 대표는 중앙정치의 ‘뉴페이스 중독’을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에서 스스로가 기초의회나 정당 조직 내에서 훈련과 교육을 거친 젊은 정치인들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유명세와 ‘스토리’를 가진 외부 인사를 영입해 잠깐의 화제 물이에 동원하고 버리는 행태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의원 역시 천 대표와 맥이 닿는 견해를 밝혔다. 류 의원은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 이력과 전문성 같은 것들은 결국 물리적 시간이 바탕이 되어야 쌓을 수 있는 것들이다”라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청년에게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정치인이 자체 경쟁력과 업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묶어두는 고정관념 넘어  
새로운 청년정치 펼쳐야

류 의원은 정치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무기이기도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그런 맥락에서 청년정치란 불평등에 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세대를 직접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관습적으로 해온 것처럼 청년을 단순히 생물학적 연령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피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청년을 위한 청년정치란,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체합하는 부조리의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천 대표는 청년정치가 단순히 청년을 위한 정치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청년정치는 정치가로서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진 청년이 하는 정치를 뜻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장에 경제적, 사회적 입지가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등록금, 주거비 지원 같은 정책을 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애초에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다른 청년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다’는 태도가 오만일 수 있다”면서 “청년정치는 청년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젊은 사람의 시각과 감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모색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와 공존 위한 ‘언택트’ 서비스

교수칼럼

서원석

호텔경영학 교수



사회혁신을 연구하는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네스타(Nesta)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There will be no ‘back to normal’)’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전 세계는 앞으로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계층간 불평등 심화와 갈등 증가, 기업 경영방침의 변화, 원격근무 및 온라인 교육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저서 『사피엔스』로 알려진 이스라엘의 미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러 인사들이 동일하게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2019년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약 1,7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관광수입을 215억 33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크다. 그러면서도 호텔산업은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고, 호텔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이 크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다.

최근 호텔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한 달에만 국내의 특급호텔 손실액이 5,8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호텔기업의 손실은 앞으로도 지속

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봤을 때 대규모 MICE행사 등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던 사업들이 전부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커힐, 신세계, 롯데 호텔 등 특급호텔들은 건축재정에 돌입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객실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호텔도 있고, 감염방지 등을 위해 식음업장의 주중营业을 중단한 곳도 있다. 이들 호텔들은 임원진부터 10%의 임금 삭감에 앞장섰으며, 직원들도 돌아가며 유급휴가를 쉬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자금의 여력이 없는 중소 호텔들과 유관기업들이다. 이미 수많은 호텔과 관련업체가 매각 및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관광산업체의 경영지원을 위해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는데, 이것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 한다. 문체부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한 곳은 200여 곳이 넘었으며, 지속적인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즉,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호텔업계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국내 호텔산업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텔업계는 영업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따라 둘로 나뉘고 있다. 먼저, 객실 판매 이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특급호텔이나 4~5성급 호



코로나와 공존할 수 있는 관광 산업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중앙일보DB)

텔은 ‘언택트’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심스럽게 객실营业을 재개하는 중이다. 언택트 서비스란 일종의 비대면 서비스로,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고객의 요청사항 등에 온라인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반면, 3성급 이하의 중소 호텔들은 객실 판매 이외의 수익사업이 없는 곳도 많다. 정부지원 등을 받고 직원들에게 유급휴직을 요청하는 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대응방안은 결국 그것이 지속되는 기간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에 달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독일 등 전 세계 주요 18개국 대표 경제단체와 세계경제단체연합(G20) 등 3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발표한 결과 응답기관의 52%는 올가을과 겨울에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어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고, 2022년 하반기에나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향후에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시점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호텔산업은 방역과 보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식음료 업장과 달리 방역 관련 제도를 강제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세워 관리하는 호텔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생활방역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호텔산업 역시 향후에는 감염병 및 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고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운영방침이 정립될 것이다. 방역기준을 높이고 적용하는 것은 시설적인 문제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언택트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허물어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약 없는 거리두기만이 해법이 아니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의 관광산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시점이다.

참여마당

김세민

자율전공학과 2018



##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지난해 말 새로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견됐다. 코로나19라고 불린 이 바이러스는 2020년을 집어 삼켰다. 코로나19는 필자의 일상 속 여러 가지를 ‘중지’시켰고 또 여러 가지를 ‘상실’하게 했다.

‘중지’된 것들 중에선 ‘등교의 중지’가 가장 와 닿는다. 개강은 1주, 2주 미루어지다가 온라인이라는 다른 경로를 통해 무기한 연장되었다. 등굣길, 학교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상실’도 이어졌다. 소중하게 여겨왔던 공간들을 빼앗긴 것이다.

집에서부터 역까지, 그리고 역에서부터 학교까지. 집-역-학교로 이어지는 내가 걸어가는 길과 거리라는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은 노릇한 빵이 구워지는 냄새,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등교가 중지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그러한 공간은 사라졌다. 장소는 그대로인데 공간은 사라졌다. 이어폰을 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듣던, 달콤한 냄새의 유혹을 참아가며 걸음을 재촉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문득 그리워졌다.

지금은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캠퍼스도 마찬가지다. 3월인데 신입생이 없었다. 4월에 쓸쓸한 벚꽃만이 그 자리를 지켰다. 5월의 대축제도 없었다. 그리고 6월인데 현재, 학업을 위해 도서관을 오가거나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의 모습도 사라졌다. 계절이 지나고 달이 바뀌면 당연히 올 것이라 생각하던 그 공간들이 사라졌다. 활기 넘치던 캠퍼스가, 선후배, 혹은 동기들과 소소하게 나누던 대화 또한 그림자.

모든 그리운 공간에는 사람이 있다. 어쩌면 사람과 마주보던 일, 소통 그 자체가 그리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되는 듯 보이면서 일부분 등교가 허용되고, 잃어버린 공간들도 이전 모습을 되찾아가는 듯하다. 하지만 진정세라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설레는 한편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이유다.

‘순간의 방심’이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우리는 코로나 사태 초기 일련의 사건을 통해 배웠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 ‘거짓말 학원강사’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느꼈다. 그것들을 잃어버린 시간 동안 우리는 그 공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공간들을 다시 찾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20 KHU

캠퍼스타운 로고 공모전

접수기간  
6. 5. 금 ~ 6. 30. 화

신청자격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접수기간

2020. 6. 5.(금) ~ 2020. 6. 30.(화) 18:00까지

진행일정

신청 / 접수	심사	발표
캠퍼스타운 로고 공모전 접수	심사	결과 발표
2020. 6. 5. (금)	6. 10. (수)	6. 30. (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canta@khu.ac.kr)  
주소: 서울특별시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로고 공모전 신청서

유의사항

- 본 공모전은 수상작을 선정하여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에 사용한다.
- 본 공모전은 수상작을 선정하여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에 사용한다.
- 본 공모전은 수상작을 선정하여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에 사용한다.

응모내용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상내역

대상	1등	200만원
작품명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주제 및 부연 설명	2만원
활동성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주제 및 부연 설명	2만원
대중성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주제 및 부연 설명	2만원
완성도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주제 및 부연 설명	2만원

심사방법

신청기간에 따른 전문심사위원 심사 후 경희대학교 구성원 투표로 선정

접수문의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팀 (02-961-9514, 9515)

2020 KHU

캠퍼스타운 서포터즈 모집

접수기간  
6. 5. 금 ~ 6. 11. 목

모집대상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모집내역

2020. 6. 5.(금) ~ 6. 11.(목)

접수기간

2020. 6. 5.(금) ~ 6. 11.(목)

발표기간

2020. 7. 1.(수) ~ 7. 31.(수)

주요활동

- 캠퍼스타운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지역 내 행사 참여 및 사업 지원
- 월 1회 서포터즈 정기회의

진행일정

신청 / 접수	심사	발표
캠퍼스타운 서포터즈 모집	심사	결과 발표
2020. 6. 5. (금)	6. 10. (수)	6. 30. (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canta@khu.ac.kr)  
주소: 서울특별시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서포터즈 모집 신청서

2020 KHU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접수기간  
6. 5. 금 ~ 6. 30. 화

신청자격

서울시에서 창업자를 위한 대학(원생, 일반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지원

접수기간

2020. 6. 5.(금) ~ 6. 30.(화)

진행일정

신청 / 접수	심사	발표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접수	심사	결과 발표
2020. 6. 5. (금)	6. 10. (수)	6. 30. (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canta@khu.ac.kr)  
주소: 서울특별시 경희대학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신청서



## 인터뷰

## 보수 정치권 세대교체 “축적된 역사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 미래통합당(통합당)은 지난 4번의 선거 동안 줄곧 뼈아픈 패배를 겪었다. 이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개혁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낡은 보수’를 쇄신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9명 중 3명을 청년 할당으로 채웠다. 그중 비대위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민(경제통상학 2000) 동문을 만나 통합당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가능해봤다.

지난 1일 출범한 통합당 비대위에 김병민 동문이 인선됐다. 정강·정책위원회를 이끌게 된 김 동문은 통합당이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직접 그려나 가게 된다.

김 동문은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한 역할을 맡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정당, 그리고 국민의 삶을 앞서 챙기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정치상을 제시했다. 동시에 김 동문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데 이는 양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과정까지 공동체에서 축적된 역사를 존중하며 문화를 바꿔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동문은 지난 2010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서초구 의회에 입성하며 정치 활동에 입문했다. 이는 고승덕 전 의원과 인연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07년 우리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김 동문은 대동제에 고 전 의원을 초청해 명사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고승덕 전 의원이 학생 공동체 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눈여겨본 것으로 안다”며 “이후 기초의원 후보공천을 제안받



김병민(경제통상학 2000) 동문은 지난 2007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사진=김병민 제공)

게 됐다”고 밝혔다. 이때 최연소 기초 의원으로 당선됐던 김 동문은 “이후 청년 기초의원 수가 늘었다”며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된 것 같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듬해 김 동문에게 뜻하지 않은 재난이 덮쳤다. 지난 2011년 한국 중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우면산 주위에서 산사태가 연달아 일어난 것이다. 김 동문은 “무너져 내린 흙이 도로와 아파트를 덮쳐 16명이 사망했던 재난 상황이었다”며 “한 달여간 피해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고 회상했다. “현장을 수습하다 물리적 한계를 느껴 우리학교를 통해 봉사 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면서 “이때 군 인력과 장비도 투입됐는데 철수 전날에 읍소하시피 간청해 며칠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때 경험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와 ‘공감 능력’은 김 동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됐다. “정치인은 누구보다 먼저 미래를 생각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4차 산업 시대에서 어려움을 겪을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조금이나마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동문은 교수, 시사 평론가, 방송인, 유튜브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왔다. 김 동문은 “고승덕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변호사, 교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연결고리를 찾으면 조금의 시간과 노력으로 여러 활동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동문이 찾은 연결고

리는 ‘선한 영향력’이었다. “의정 활동이 직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 외 활동은 간접적으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분야를 오갔던 경험은 김 동문에게 큰 자산이 됐다. “작은 일이 쌓이며 점차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며 “지방의회의원으로 4년을 지내며 지역 언론과 밀착하며 쌓은 방송 경험이 전국 언론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자연스럽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이러한 신념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뛰어 들었다. “방송 출연도 우연히 나가게 된 토론 방송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의정 활동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기도 했다. 지난 해까지 우리학교 행정학과 객원 교수로 교단에 섰다.

김 동문의 강의는 한 주 동안 가장 주목받은 시사 문제로 시작된다. 김 동문은 “제가 가진 강점을 살려 학생들과 시사 문제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며 “방송에서 보수 패널로 활동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특정 주제를 이야기 할 때는 양 측의 논거를 모두 설명해 판단의 몫을 학생에게 맡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의평에서 학생들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에 대해 김 동문은 “강의가 시사 문제에 대한 토론과 지방 자치를 직접 실현하는 조별 활동으로 구성돼 있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친구들은 부담스러워한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간혹 사제 관계를 넘어 인생 선배로서 정치인이 되기 위한 방법을 묻는 학생들도 있었다. “청년 기초의원의 경험을 묻는 후배들이 많았다”며 “교수보다는 선배로서 다가와 도움을 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청년 정치인을 꿈꾼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구든지 찾아가 두드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청년의 정치 참여가 찾아보기 힘든 것처럼 정당 내 청년 정치인도 소수”라며 “정당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본관에는 ‘그대 살아 숨 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불혹을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도 2006년 국토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본관에서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던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 그 문구대로 500km가 넘는 길을 끊임없이 나아갔고, 지금도 동문들을 만나면 건배사는 어김없이 그 문구다. 학교 구성원 분들도 그 문구대로 살아 숨 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길 바란다.”고 애교심을 비쳤다.

## 코로나-19 극복

## “힘을 내요! 경희 동문!” 이벤트

경희의료원이 당신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기간** : 2020년 6월 30일(화) 까지  
**대상** : 경희동문 본인 및 가족  
**우대혜택** : 모든 건강검진 프로그램 50% 할인  
**문의** : 02-958-8711-3  
 (경희의료원 본관 2층 동서건강증진센터)

[우대 프로그램 안내표]

	우대금액 (여성 기준)	프로그램 구성 (여성 기준)
<b>기본건강검진</b>	<b>29.5만원</b>	기초검사, 혈액검사, 정밀혈액검사, 호흡기계검사, 심혈관계검사, 소화기계검사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치과검사, 한방검사, 여성의학검사
<b>그린검진 (30대)</b>	<b>52.5만원</b>	기본건강검진+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자궁경부암, 수면위내시경, A형간염
<b>블루검진 (40대)</b>	<b>67.5만원</b>	기본건강검진+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복부CT, 수면위내시경
<b>골드검진 (50대)</b>	<b>90만원</b>	기본건강검진+관상동맥CT, 흉부CT,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골밀도검사, 수면위내시경

※홈페이지(www.khmc.or.kr)에서 더 많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0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 방법 및 강의내용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기간 : 2020.06.15(월) ~ 06.30(화)
2. 대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3.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4.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20.7.7(화) ~ 7.9(목)  
2020.7.16.(목) ~ 7.17.(금) 17:00 (집중이수 대상강좌)
5.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조회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20.06.22.(월) ~ 06.30.(화) / 07.06.(월)  
2020.07.16.(목) ~ 07.17.(금) (집중이수 대상강좌)  
※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20.07.07.(화) ~ 07.09.(목)  
2020.07.16.(목) ~ 07.17.(금) (집중이수 대상강좌)

6. 강의평가 실시 방법
  - 1) 경희대학교 포털 접속 → 수업/성적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2)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의 [작성/조회] 클릭
  - 3)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 [제출] 클릭 (제출 후 수정 불가)
  - 4)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평가전]에서 [평가완료]로 변경된 것 확인
  - 5)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작성/조회]를 클릭하여 조회
  - 6)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7)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평가완료]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8)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